▪푸닛 샤마의 대입가이드

여름방학 활용따라 학업 성패 좌우된다

서머캠프에서의 자원 봉사활동도 의미 있는 스펙 쌓기가 될 수 있다. 뉴욕 가가 센터의 서머캠퍼 모습. 〈뉴욕타임스〉

여름방학, 이제 2달 앞으로…

개미와 베짱이에 나오는 이솝우화를 보면 개미는 쉬지 않고 일을 하며 겨울을 준비한다. 하지만 베짱이는 시원한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며 세월을 보내다 추운겨울이 되어 비참한 모습이 된다. 고교생들의 경우 여름방학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지난 가을에 치렀던 PSAT 성적이 이미 나왔을 테고 경쟁력 있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그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여름방학 시작을 앞둔 4, 5월이 되면 학부모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다. 지난해에 이어 좀 더 빨라진 여름방학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10주에서 길게는 12주가 되는 긴긴 여름방학 동안 도대체 무엇을 시켜야 좋을지 몰라 주위 친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도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것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머리가 아프다고 하신다.

푸닛 샤마
시니어 컨설턴트
(어드미션 매스터즈)

자녀들에게 자율에 맡기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마음만 앞서고 아이디어는 없다고 하신다. 이 기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면 자녀들의 재능을 더욱 키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특별 교육을 통해 보충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 없이 있다가는 자녀도, 부모도 모두 방학이 끝난 뒤에 비로소 아쉬워한다.

주니어가 되어 대학 입학 지원을 위해 프로파일을 만들게 된다. 이때 여름방학을 알차게 개미처럼 보낸 학생들과, 베짱이처럼 허송세월을 한 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자녀들을 위한 대입 준비를 위해서 또한 실력 향상을 위한 자신감을 갖추는데 있어서도 여름방학은 최고의 기회다. 여름방학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 열심히 보냈는지는 대학 입학 지원서 작성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예전에 비해 많은 학부형들이 그 중요성을 실감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관해 상담을 의뢰하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주로 고교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표준고사들 준비 즉, SAT나 ACT 준비와 부족한 학과목 보충을 한다거나, 인턴십이나 봉사활동,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권하고 중학생의 경우 독서와 함께 단어공부 및 끊임없는 수학문제 풀이 연습, 재능을 찾는 작업, 영재 선발 시험이나 사립학교 시험 준비 등을 권하고 있다.

우수한 중학생의 겨우 보딩스쿨 준비를 위해 시험 준비도 해보고 지원서 작성을 해보는 것도 권한다. 6학년께 준비를 시작하여 8학년에 올라가면 도전을 해보면서 미리 대학입학 준비에 관한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명문 보딩스쿨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준비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실력 향상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다.

우수한 중학생들의 경우 SAT에서도 이미 2,100점 이상의 스코어를 자랑한다. 충분한 어휘력과 독해력이 없이는 저학년에서 이렇듯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어렵다. 꾸준하고 끈기 있는 공부가 훗날 저력 있는 성적으로 보답된다.

꼭 방학이 아니라도 방학을 포함해서 꾸준히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은 방학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시간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방학은 자율로 계획을 세워 또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특별한 다른 점을 만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독특함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자유시간이다.

대학에서 주관하는 소위 알짜 여름캠프들은 모두 SAT나 ACT 성적을 요구한다. 막상 지원하려고 하니 시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당황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여름 방학동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학생들이, 몇 개의 여름캠프 참가를 경험하며 상당히 어른스러워지며 의젓해지는 걸 많이 보았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만나 생활하면서, 혹은 공부하면서 얻은 경험이 그들을 독립적이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필자도 상담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매년 여름방학을 기해 부모와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법도 배우고 훌쩍 성숙해져서 오기를 바라고 있다.

탑 명문 보딩스쿨에 진학할 때도 여러 영재캠프 경험이 좋은 기록이 될 수 있다. 명문 보딩스쿨의 다니는 학생들의 겨우 매년 이름 있는 명문 여름방학 프로그램, 예를 들면 듀크, 존스 합킨스, 스탠포드 대학에서 서머를 보내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다.

명문대 합격자 발표를 보면 어느 정도의 스펙이면 어느 어느 대학들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겠구나 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의외의 케이스들을 보면 미국 명문대 합격은 완전한 스펙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원자만의 독특한 환경이나 경험을 성숙하게 승화시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스펙'쌓기

병원·클리닉 등 자원봉사 인턴십 연결
공원·비영리단체 캠프 집중코스 등록

최고의 스펙을 쌓는 것이 꼭 돈이 많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름방학 동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로 최고의 스펙을 쌓아보자.

1. 로컬 병원이나, 비즈니스, 클리닉 그리고 실험실 등은 자원봉사자들을 찾고 있다.

많은 곳이 자원봉사자를 나중에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많은 곳들이 10대 청소년들을 채용하고 있다. 한 학생은 나중에 메디칼이나 바이오캠 쪽으로 진로를 정하기를 원했으며 10학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대학의 실험실에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리서치팀에 가담하게 해주었고 계속해서 졸업 때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

또한 병원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4주 동안 일반외과 의사 옆을 따라다니며 의료분야의 일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이런 것들은 경쟁이 심한 탑 유명 사립대의 바이오 메디칼 엔지니어링의 입학에 도움이 되었다.

2. 공원이나 학교 그리고 캠프 등의 여러 곳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많은 여름방학 프로그램들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돈을 받기도 한다. 일부 캠프는 한 주 정도의 집중코스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캠프들은 여름 내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비영리 단체들은 캠프 프로그램과 함께 홈리스 어린이들을 위한 1주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찾고 있다. 대부분 캠프 마감일은 2월이다.

3. 비즈니스, 비영리단체, 정치 캠페인 등도 여름방학 동안을 위해 재능있고 열정적인 학생들을 찾고 있다.

알렉스는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싶어했다. 그는 여름 내내 체인을 여러 개 둔 한 식당의 본점에서 인턴을 했다. 그런 다음 비행기 회사에서 인턴십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국제무역 회사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 결과로 많은 대학에서 국제, 소셜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었다. 수년 전 대니얼은 대통령 캠페인에서 100여시간을 자원하여 미국시민들이 투표를 하도록 도왔다. 그는 로칼 병원에 메디칼 장비를 운송하는 회사에서 100여시간을 자원봉사했다. 아주 독특한 자원봉사의 경험은 다른 지원자들과 사이에서 차별화를 주었다. 그는 지금 명문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다.

4. 자신만의 독특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라. 많은 학생들이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라.

일부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교내에서 후배나 친구들을 상담해 주는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원한다. 여름 내내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전문 카운슬러에게 교육을 받고 학기 중에 시도했다. 그는 학교 대표 수영선수였고 그가 여름방학 동안 학교 친구들과 클럽을 만들어 준비해온 프로젝트였다. 그는 현재 명문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어느 한 여학생은 국제 구조단체의 지역 대표역할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교내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던 역할의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졌으며 고교를 졸업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구호단체에서 열정을 다하고 일하고 있고, 더욱 큰 구조단체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컨퍼런스를 열기도 하며 봉사를 하고 있다. 그녀는 대학에서 사회학, 소셜 웰페어 코스를 들었고 지역 봉사단체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앤드류는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를 하며 새로운 챕터를 만들어 운영해 왔고 여름방학 내내 새로 시작한 챕터를 키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몇 개의 주요한 이벤트를 열었다. 그는 리저널 보드에 이름을 올렸고 12학년 때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다. 결국 그는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고 그는 대입 에세이에서 자신이 시도했던 이벤트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에서 배웠던 것을 독특하게 표현해 냈다.

제11회 미주동요사랑회 "동요 부르기대회"

새싹들의 행진이 이어지는 푸르른 계절에 동요 부르기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미주 동요 사랑회 주최 제11회 동요 부르기 대회를 한국일보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2013년 4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LA 만나교회 (Manna Methodist Church of LA)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 Tel : 213.365.6191

- 참가대상 : Preschool~12학년 (미주거주 어린이)
- 시상내역 : 전체 대상, 각 부문 최우수, 우수, 장려 (상장과 트로피)
- 신청기간 : 2013년 3월 4일 (월요일)~2013년 4월 20일 (토요일)
- 대회참가비 : 개인 $40 / 중창 $80 (12명으로 제한)
  〈참가 일주일 전 취소는 참가비를 반환치 않음.〉
- 신청서 보낼 주소 : 미주동요사랑회 Tel & Fax : (213)389-2135
  680 Wilshire Place #401 Los Angeles, CA 90005
- 반주방식 : 반주자 악보지참
  (* 반주자 대동을 원칙으로 하나 주최 측 반주자에게 미리 부탁할 수 있음.)
- 참가곡목 : 지정곡 1곡, 자유곡 1곡 각각 1절씩 외워서 불러야 함.
- 리허설 : 대회 당일 3시부터 가능
- 악보배부 및 문의사항 : 한국일보와 미주동요사랑회
  (213)300-7214(이혜자) / (310)650-4842(장상근 회장)
  *지정곡은 악보를 제공하나 자유곡은 참가자가 악보를 구해야함.
  (Web/www.cafe.daum.net/heajaleejana) 에 방문 미주동요사랑회 동요 부르기 대회를 참조

특전 : 대회 입상자는 Winner Concert에서 연주할 수 있음 (날짜는 추후 공고)

부문별 지정곡

유치부~K
1. 아기 별 (윤경환작사/권길상작곡)
2. 예쁜 아기곰 (조원경작사, 작곡)
3. 미소 (강신욱작사/이수인작곡)
4. 우주선 (나성작사/김석곤작곡)

중급 5~8
1. 오월에 우리는 (김종영작사/권길상작곡)
2. 달팽이의 하루 (조원경작사/김진성작곡)
3. 새로운 길 (윤동주작사/안갑상작곡)
4. 봄비 (전유순작사/이용수작곡)

초급 1~4
1. 둥근달 (윤석중작사/권길상작곡)
2. 나의 친구 (나성작사/박영근작곡)
3. 흰나비와 초록 바람 (김종영작사/정은하작곡)
4. 종달새의 하루 (윤석중작사/이은렬작곡)

고급 9~12
1. 모래성 (방홍근작사/권길상작곡)
2. 구름 (정근작사/이수인작곡)
3. 수수 꽃 다리 (김원겸작사/최영순작곡)
4. 오솔길 (신진혜작사/이혈근작곡)

중창 : 12명 제한
1. 푸르다 (박경종작사/권길상작곡)
2. 청소당번 (문원자작사, 작곡)
3. 오솔길 (김원겸작사/김정철작곡)
4. 탱글 탱글 화사샤 (김정녀작사, 작곡)
5. 카시오페아 (김종학작사, 작곡)

◈주최: 미주동요사랑회 ◈후원: 한국일보 미주 본사